

#2 구원이란 무엇인가?

본문 요한복음 8:1-8:11

-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20:10)
-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율법은 간음에 대해 죄라 정죄하고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1.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3:3, 6 / 사도행전 2:37-40)

2. 회개와 죄사함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5:8)

3. 따라서, 구원으로 길은 곧 누구를 통하여 가능한가?

(사도행전 16:31 / 요한복음 14:6)

4. 주님은 11절에 죄사함과 동시에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 하시는가? 무슨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가?
(빌립보서 2:12)

(디모데후서 4:7-8)

자녀가 출생하면 호적에 이름을 올린다. 호적에 이름을 올리면 모든 일이 끝나는가? 아니다. 평생이라는 시간에서 보면, 자녀의 출생과 입적은 아주 짧은 순간이다. 신자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 나는 순간이 있고, 신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회사에 합격하는 순간, 회사의 직원이 된다. 회사 합격으로 직장 생활의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다. 합격의 순간과 직장생활 전체를 구원의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랜드 샌추얼에서 롱아일랜드로 열차를 타고 간다고 해보자. 열차에 타는 순간은 죄사함이다. 열차를 타고 가는 전체의 시간은 구원의 과정이다. 죄사함은 구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죄사함은 구원의 순간이다. 그러면 구원은 죄사함인가? 맞다. 그러나 아니다. 구원의 전 기간은 죄사함의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길다.

통상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말하면 “죄사함 받으셨어요?” 라는 의미이다. 죄인이 예수 믿는 신자가 되는데 있어 죄사함이 가장 중요하지만, 죄사함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죄사함만이 구원의 전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죄사함과 구원을 잘 구분해야 한다.

구원은 완료형이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는 신자가 되었다.
구원은 진행형이다. 죄사함 받은 나는 죄사함에 안주하지 않고 삶 속에서 성숙하고 거룩한 신자로 열심히 살아간다.
구원은 미래형이다. 나는 미래의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완전한 신자로 변화될 것이다.

(나눌 내용)

*죄사함은 구원의 순간이라는 말이 이해 되는가?

*죄사함과 구원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는가?

*구원은 죄사함인가?

*영접기도를 함께한 사람에게 “당신 이제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일까?